

9/22/19

설교 제목: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12 장 18-27 절

- (막 12:18)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절관주** 눅 20:27
- (막 12:19)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절관주** 신 25:5
- (막 12:20)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 (막 12:21)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 (막 12:22)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 (막 12:23)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 (막 12:2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절관주** 딤후 1:7
- (막 12:25)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 (막 12:26)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절관주** 마 22:32, 눅 20:38
- (막 12:27)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부활에 대해 논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책잡아 죽이려 하는 일에는 헤롯 당원들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야합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기기로 의기투합하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와 논쟁을 벌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도리어 당하고 온 것을 알고 이번에는 자신들이 나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 하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정치적 메시아의 출현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연유로 유대인들의 메시아 출현에 대한 관심은 최고로 고조되어 있었고 종교 세력들의 입지와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 사회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종교 세력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주요 종교 세력으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엷세네파 등이 존재했습니다.

이들 중 바리새파가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바리새파는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이들은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전승)을 중시여겼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라도 지나친 형식주의에 빠져 율법의 참 정신을 잃어 버렸습니다.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 함께 양대 세력을 형성했던 종파입니다.

사두개파라는 명칭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이들은 제사장 그룹을 독점하고 산헤드린 공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습니다.

수적으로는 가장 소수였지만 유대 사회의 상류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종교 의식이나 제사도 주관하고 토라 즉 모세 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열심히 읽었으나 로마 권력에 붙어 사회적인 특권과 부를 누리고 있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순수성을 잃게 되었고 윤리성도 결여되어 백성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열심당은 일종의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선민 사상과 민족 우월주의를 근간으로 했습니다.

엷세네파는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중시한 점에서 바리새파와 신학적 성향이 비슷하였습니다.

엷세네파는 '경건한 자'라는 뜻으로 이들은 철저한 금욕 생활과 은둔 생활을 하며 성경을 연구했고 종말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무드가 무르익은 시점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 년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힘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하자 이들 종교 세력들은 자신들의 입지와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바로 이 종교 세력의 이같은 핍박을 통해 십자가 사역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막 12:18)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행 23:6)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문을 받노라

(행 23:7)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행 23:8)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으니 당시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말도 되지 않는 유치한 질문을 합니다.

(막 12:19)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막 12:20)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막 12:21)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막 12:22)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막 12:23)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들이 여기서 언급한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었다는 것은 신명기 25 장에 나오는 수혼 제도를 가리킵니다.

이 법은 모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첫 아들은 형의 자손이 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셔야 했으므로 그러기까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보존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신 25:5)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신 25:6)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수혼 제도에는 법 정신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장자권을 계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에서는 장자 계승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장자의 손을 이어 가문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다르긴해도 우리나라에도 장자의 손을 이어가는 방편으로 양자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음은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자가 아들도 없이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살 길이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도 없이 과부가 된 여자들을 구원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동생들이 형의 아내를 돌보게 한 것입니다.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일곱 형제가 차례로 죽고 한 여자가 이 일곱 명과 다 결혼을 했다면 부활 후에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유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오히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줍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고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막 12:2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나

예수님은 그들이 부활에 대해 오해하는 이유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중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후에 살긴 뭘 살아, 죽으면 그만이지. 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교회에 다니는거야”

맞지도 않는 말을 너무도 위풍당당하게 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 줄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면서 자신들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읽긴 읽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것들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부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읽고 있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막 12:26)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막 12:27)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모세의 책 중'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은 출애굽기 3 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온 말씀을 말합니다.

참고로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에 장과 절이 나누어 있지 않았고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한 권의 책으로 간주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사두개인들에게 이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고 꾸짖으십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은 그들이 인정하는 성경인 모세 오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거기에도 부활이 나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 3:1)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매

(출 3:2)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 3:3)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출 3: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 3:5)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 3: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부활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의 부활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BC 2000 년경에 살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BC 2000 년경에 죽은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활을 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신 32:39)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막 12:25)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할 때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하십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는 말은 천사들과 같이 영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이며 이것은 부활 후에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는 말은 내세에서는 자녀 증식이 필요없고 육신적인 정욕도 없기 때문에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두 자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부활'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죽음 뒤에 더 이상의 생이 없는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생이 없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생이 전부라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단 한 번 뿐인 이 세상 삶을 멋있게 즐겨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져 싫증이 나도록 써 보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져 땡땡거리 보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여 큰 소리를 쳐 보기도 하고 .....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얻었는가 비합법적으로 얻었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일인가 아닌가 등은 상관없습니다.

조국스럽게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어야만 합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지닌 채 이 세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